

## 공동관심사 나눔

### 1. 오늘 일정 안내

- **비대면 예배 안내** :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됨에 따라,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 : 오후 1시 30분, 내자동 사무실(온라인 병행), (신축 예배당의 공간배치 조정안 검토 등)
- **청신 임시총회** : 오후 5시, 온라인(ZOOM)
- **돌넉농산물 판매** : 백미, 현미, 보리쌀과 감자(10kg 택배비 포함 15,000원) 주문받습니다. (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 2. 이번 주 일정 안내 : 7월 12일(월)~7월 18일(일)

- **정기 당회** : 7월 18일(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 **새창 인문공화국**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한국 평화학의 탐구」(서보혁), 문의 : 유 건 교우(010-5154-9202)
-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히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홍창성)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무엘기하 7:1~14a, 에베소서 2:11~22, 마가복음서 6:30~34, 53~56

### 3. 이후 일정 안내

- **새창 기도회** : 7월 25일(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
- **목회운영위원회** : 7월 25일(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 4. 에큐메니칼 소식

- **서울노회 임시노회** : 7월 27일(화), 오후 3시, 초원교회
- **서울퀴어문화축제** : 7월 18일(일)까지 진행, 서울퀴어문화축제 웹사이트 (<https://sqcf.org/>), 유튜브(<https://www.youtube.com/c/sqcforg/>), 목회마당 참고
- **한국기독교장로회 종전평화선언운동 및 화해평화의 교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 : 7월 15일(목), 오후 1시(온라인)
-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 4월 27일(화)~7월 27일(화), 부산-임진각(구로역 통과)/2차 행진 : 7월 24일(토), 오전 9시 30분, 정발산역 1번 출구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연속포럼** : 6월 28일(월)~ 8월 16일(월), 청어람출/ 유튜브 링크 공유, 참가비 4만 원 (회당 5천 원), 문의: cwdh2021@gmail.com

### 5. 감사헌금

김영진(광야 첫 예배), 김희현(새 예배처소 마련), 박수현, 박정례(새로운 시작), 이광중/이현옥, 채미희, 무기명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5. 우리는 분단된 겨레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 <광야생활 안내>

##### • 예배 장소 및 생활

- 1) 비대면 예배의 시작 :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장정적으로 7월말까지)
- 2) 예배(녹화) 장소 : 비대면 예배기간 동안에는 임시예배처소인 서울YWCA를 활용하지 않고, 교회 사무실(내자동)에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합니다.
- 3) 예배위원 참여 :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직들은 목회실의 요청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 관련 상황과 기도>

- 오늘은 신축 예배당의 공간배치 조정안을 검토하는 건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 교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들의 지혜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선교 사명을 감당할 건축설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 목 / 회 / 마 / 당

### 2021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21 22nd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06.26(토)~ 07.18(일)



한국사회에 이 메시지를 던진 지 이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외쳤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성소수자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토론회 청문회 때마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만 남겨집니다.

차별적인 허로 내뿜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혐오발언들은 성소수자들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존재 자체를 버릴 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받는 차별이 무엇인지 살피어 법으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어로 나누어 소수자 차별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만 성소수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커밍아웃 하며 살아온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외쳐온 말들이 지겹고, 지쳤고, 이제는 그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소수자는 반대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축제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만 살아있는, 광장에 나오는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학교, 직장,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사는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미혼모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이 시대의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매일 맞서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를 전복합시다. 그래야만 새로운 평등의 세상이 옵니다. 인권이 바로 서는 삶의 초석을 시민의 힘으로 이루었으니, 혐오와 차별도 우리의 힘으로 철폐합시다.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영원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차별의 시대를 없애는 기본이며 시작입니다. 성소수자가 안전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차별의 시대를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제22회 슬로건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

□ 온라인 무지개 축복기도식

□ 제21회 한국퀴어영화제

□ 레인보우 굿즈전

※ 검색어 : 서울퀴어문화축제